IB DIPLOMA PROGRAMME
PROGRAMME DU DIPLÔME DU BI
PROGRAMA DEL DIPLOMA DEL BI

M05/2/ABKOR/HP1/KOR/TZ0/XX/T

22052328

KOREAN B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SUPERIOR – PRUEBA 1

Monday 16 May 2005 (morning)
Lundi 16 mai 2005 (matin)
Lunes 16 de mayo de 2005 (mañana)

1 h 30 m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e).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 Répondez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fourni.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para la Prueba 1.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오는 4월 15일(목)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21세기 선진복지국가 건설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야 할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대사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번 선거를 반드시 공명선거로 이끌어 우리의 손으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민주주의의 유산을 물려 주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바르게 행사합시다.

만 20세 이상('84. 4. 16 이전 출생)의 국민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이번 선거를 온 국민이 함께 하는 대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불법 · 타락선거는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합시다.

국민 모두 감시자가 되어 〈금품제공〉, 〈흑색선전〉, 〈지역감정조장〉 등 탈·불법선거운동이 일절 발붙이지 못하는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해 나갑시다.

법과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정부는 선거기를 틈타 법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하는 등 국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금품 등을 받은 자에게 그 50배의 과태료 부과

※신고전화 : 경찰 (국번없이) 112, 선관위 1588-3939

2004년 3월 24일

법무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실시에 따른 부재자신고 안내

부재자신고 대상자

선거일(4.15)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

- 3. 31 이전부터 주민등록지를 떠난 장기 출타자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근로자 및 출장중인 회사원 등
-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중인 군인 및 경찰공무원
- 병원, 요양소, 수용소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분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분 등

신고기간 및 방법 : 2004. 3. 27 ~ 3. 31(5일간)

부재자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여 주민등록지의 구 · 시 · 읍 · 면(동)장에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요금 무료) 또는 인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 배부

신고서는 전국 시 · 군 · 구청, 읍 · 면 · 동사무소에 있으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투표 기간 및 장소 : 2004. 4. 9 ~ 4. 10(2일간)

부재자신고를 한 분께는 4월 6일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4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매일 10:00~16:00)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부재자투표소는 4월 6일까지 공고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및 각급 행정기관 등에 배부된 부재자신고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행 정 자 치 부

본문 B

저소득층 信不者 크게 늘어

Credipia 2004

2004년을 신용회복 원년으로

월소득 100만원이하가 전체 37% 차지
불황으로 사업실패·실업자 양산 영향

자료:신용회복위원회

극심한 내수위축 속에 '저소득층'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빚을 갚기는 커녕 생계유지도 어려운 신용불량자가 늘면서 '신용불량 빈곤층'이라는 새로운 사회계층까지 형성되는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3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 2월말 현재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신용불량자 수는 1만5141명으로, 이 가운데 월평균 소득 100만원이하는 전체의 37.3%인 5646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월소득 100만원이하 비중이 16.9%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만에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비중이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신용회복위는 신용불량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으면서 현재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고있어 신용불량자의 현재 소득이 파악되는 유일한 곳이다.

신용회복위에 지원을 신청하는 신용불량자들의 평균 채무가 4000만원이고 연체이자가 연 28%인 것을 고려하면 월평균 소득 100만원의 신용불량자는 매월 93만원 가량의 이자를 갚고 단돈 7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신용회복위에 지원을 신청한 신용불량자중 월평균 소득 100만원이하 저소득층의 비중은 지난해 2월 16.9%에서 29.0%(8월)→30.7%(9월)→32.9%(12월)→34.0%(2004년 1월) 등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저소득층 신용불량자가 이처럼 급증하는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극심한 내수위축과 고용사정 악화로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나 실업자 등 소위 생계유지 능력을 상실한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고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복환 신용회복위 사무국장은 "신용불량자 빈곤층이 늘수록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빈곤층에 대한 복지부담 증가등 사회비용 역시 늘어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선호기자 shpark@munhwa.co.kr

본문 C

"이윤기가 건너는 강"

1

방송국 들어가다가 로비에서 기가 팍 꺾이고 말았다. '효과'를 '효꽈'로 발음하지 말 것, '실질'을 '실찔'로 발음하지 말 것, '성과'를 '성꽈'로 발음하지 말 것 따위의 주의사항이 적힌 팻말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직원들 겨냥하고 걸어놓은 팻말인 듯 했지만, 출연자 자격으로 들어가는 나로서는 주눅이 드는 주의사항이 아닐 수 없었다. 나에게는 반사신경으로 배운 말이 있고, 운동신경을 써가면서 배운 말이 있다. 전자는 어머니의 말, 내 고향의 사투리이고, 후자는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말이다. 전자는 생득한 말이고, 후자는 학습한 말이다. 나는 술자리 같은 데서는 생득한 말을 쓴다. 방송강의에서는 학습한 말을 써야 한다. 나는 생득한 말을 자제하고 학습한 말을 쓰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다. 내 말살이의 멍에다. 생득한 언어와 학습한 언어가 동일한, '현재 서울의 중류 사회의 사람들'은 참 좋겠다.

2

글살이는 표준어에 적응해서 그럭저럭 해나가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덜미를 잡혔다. 신문과 방송과 출판의, 우리말 말살이 글살이 지킴이 노릇하는 분이 <<알만한 사람들이 잘못 쓰는 우리말 1234>>를 펴낸 것이다. 신문이 이 책의 출간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책을 인용해서, 내가 소설 속에서 운용한 말 중에서 '새비릿하다' '잣아서' '뒤짐질' '을박다' '묵근하다' '속닥하다' 등 부적절한 표현이 무려 여덟 개나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신문보도가 그랬다. 담당기자에게 부적당한 말이 아니고 표준어가 아닐 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말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담당기자는 그걸 신문에다 반론으로 싣자고 했고 나는 그러자고 했다. 그것이 한판 지상 논쟁의 불씨가 되었다.

3

'속닥하다'는 '단출'하고 호젓한 어떤 분위기를 그리는 경상북도 지방어이다. 나는 '속닥하다'는 말을 쓰지 않고는 나만 경험한 문학적, 정서적 풍경을 도무지 복원하지 못하겠다. 나는 앞으로도 어머니로부터 배운 경상도 지방어, 전라도 친구로부터 배운 전라도 지방어, 심지어는 이북 지방어까지 계속해서 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속닥하다'를 부적절하게 생각하는 그 책의 저자를 향해 신문에다 쓴 글 말미에 이렇게 썼다. "책 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속닥하게' 술 한잔합시다."

4

그런데 그분의 반론이 다음날의 신문에 실렸다. 그는 '(**29**:_____) 비표준어를 지문에다 고집하는 것은 억지요 횡포라는 생각이다"라고 썼다. 표준어가 지방 출신 작가에게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것이지, 사투리가 어떻게 표준어를 향하여 억지를 부리고 횡포를 부리나? 누가 약자이고 누가 강자인데? 그는 내가 쓰는 말이 '사투리나 속어, 은어로도 우리말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말들'이라고 했다. 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은 말을 쓰는 나는 '억지'를 쓰고 '횡포'를 부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나의 소설집은 (**30**: _____)가 아니다. 나는 좋은 말을 자주 쓰고, 그래서 사전에 올리려는 사람이다. '억지'를 쓰고 '횡포'를 부린다는 (**31**: _____)를 뒤집어 쓰고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사전에

실려 있는 말이 너무 부족하다. 나는 표준어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 나는 공무원이 “규정에 없는데요.”라고 하는 것처럼 “사전에 안 나오는데요.” 하고 항의하는 (**32**: _____)과 좀 덜 싸우고 싶다. 학습한 언어가 아닌, 생득한 언어로 내 존재의 (**33**: _____)을 극한까지, 그러면서도 자연스러게 그려내고 싶다. 표준어로 하려니 힘이 든다.

5

그는 반론 끝에 내 말을 받아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럽시다. 어디 ‘호젓한 분위기’의 집에서 ‘단출하게’ 한잔합시다.” 나는 ‘단촐’이 아니라 ‘단출’이 표준어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 그렇다면 ‘단출함’은 ‘홀로 나서기’를 뜻하는 ‘단출 (單出)함’ 인가? 어쨌거나 나는 이 ‘단출’이 싫다. ‘호젓한 분위기의 술집’이라는 일본풍의 표현도 나는 싫다. 나 같으면 정 마시고 싶으면 ‘분위기가 호젓한 술집’에서 마시겠다. ‘단촐’도 좋고 ‘호젓’도 좋지만 ‘단출’은 영 아니다. 어디까지나 ‘속닥’이다.그런데 지상논쟁이 있고 나서부터 참 좋은 조짐이 보인다. 전라도 친구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경기도와 서울 출신 친구들까지도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고는 하니 이러다가 사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야, ‘단출하게’ 가지고 안 되겠더라. ‘속닥하게’ 술 한잔하자.”

이윤기 <<이윤기가 건너는 강>> (2001)

본문 D

"대장금" 작가 김영현 씨 인터뷰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여성연대의 표본

'대장금'은 페미니즘 교과서

작가 김영현씨 인터뷰

방송가에서는 드문 여성 사극 작가로 대장금을 통해 최고의 스타로 급부상한 김영현(37)씨. 그는 "성공한 여자가 주인공인 까닭에 여성학적으로 주목받으리라 예상"했지만 '페미니즘 교과서'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에는 "민망하다"고 말했다.

-여자 등장 인물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제까지의 사극에서 여성들이 임금의 총애를 받기 위해 암투극을 벌이던 것과는 확실히 비교된다.

"10년 전부터 7년간 TV 예능 프로그램의 작가를 했다.(연세대 경제학과 85학번인 그는 졸업 후 2년간의 '백수' 시절과 1년간의 잡지기자를 거쳐 방송작가가 됐다.) 방송작가라는 험한 일의 특성상 방송국 화장실에서 울어보지 않은 이가 없을 것이다. 이때 여자 선후배와 동료들이 많이 보듬고 도와줬다. 방송국에서는 대체로 PD는 남자, 작가는 여자다. 작가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PD에 대항해 여자 작가들 간의 연합전선이 형성되곤 한다. (웃음) 이때의 경험이 극 중에 자연스럽게 녹아나왔을 것이다."

-한상궁 같은 스승이 실제로 있었나?

"지금은 서울대에 계시는 윤여탁 교수께서 여고시절 국어를 가르쳤다. 그 때 작문숙제를 해가면 일일이 고쳐주고 비평을 해주셨다. 모든 학생이 자기의 글이 대단할 줄 알고 그 선생님을 매우 좋아했다. 덕분에 국어공부 한번 열심히 했다.(웃음)"

-그럼 그 선생님이 한상궁의 모델인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 … . 부모님이 모두 교사셨다. 그런데 어릴 때 우리 모두가 선생님의 흉을 많이 보지 않나. 그때 친구들에게 동조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하고 생각했다. 참, 큰아버지·이모 등 우리 집안에는 선생님이 10명이나 된다. 선생님에 대한 오랜 생각이 한상궁 같은 스승상을 만들어냈다고 본다."

-장금이의 스승 중에는 누구에게 가장 큰 애착을 느끼나?

"정상궁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는 후배의 터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했다. PD와 작가와의 관계에서도 PD가 후배들에게 돈도 확 찔러주고 처우개선도 해주면 좋겠다는 평소의 바람이 있었던 것 같다.(웃음)"

-이번 집필로 돈은 많이 벌었나?

"방영 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별로 못 벌었다. 나는 드라마 작가로는 신인이다. (그는 약 6년 전부터 '신화' 등 네편의 드라마를 썼다. 예능 프로로는 '테마게임' 등이 대표작이다.)

-방송사는 250억원 이상을 벌었다는데 … . 금일봉도 못받았나?

"50회짜리 연속극을 쓰기로 계약했다. 계약금은 2배로 뛰었다."

-민정호는 요즘 세상에도 찾기 힘들텐데(웃음). 혹 이상형인가? (그는 미혼이다)

"개인적인 이상형이라기보다… .민정호를 그리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 드라마 '허준'에서 예진아씨는 보조자여도 빛났다. 하지만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편견으로 민정호는 시청자에게 강하게 어필하지 못했다. 그를 부각시키면 장금이의 캐릭터가 퇴색된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외조(外助)를 선비의 신조로 삼는 새로운 남성상으로 그를 그려냈다. 그런데 여성들도 참 이중적이다. 외조를 바라면서 남자도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에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웃음)"

-장덕이야 말로 상상의 인물 아닌가? 조선시대에 성차별에 도전했던 여성이라 … .

"그는 실제인물이다. 실록에도 나온다. 치통치료를 아주 잘해 성종이 제주도에서 불러 치료를 받곤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의녀는 유일무이한 전문직 여성이다. 그런 여성 중에서 성차별과 신분차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 여성이 한두 명 없을 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장금의 준비는 얼마 동안 했나?

"약 2년간 했는데 방영 전에 10회분을 미리 준비했다. 나머지는 날밤을 새우며 썼는데 그래도 하루에 6시간씩은 잤다."

-다음 작품은 어떤 내용인가?

"비밀이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moonk21@joongang.co.kr